

 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	2024. 4. 17.(수)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농업기술원	보 도 자 료 PRESS RELEASE	기술지원조정과장	김경익	☎760-7510
		농업재해대응팀장	허영길	☎760-7551
		홍보담당자	김미리	☎760-7514
동영상(웹하드) : 있음 ☐ 없음 ☒		사진 : 있음 ☒ 없음 ☐		후속자료 : 없음

올해 첫 열대거세미나방 발견·철저한 예찰·방제 중요

- 4월 11일 제주 한림읍 수원리서 성충 확인…작년 대비 7일 빨라 -
- 초당옥수수 등 농작물 피해 방지 위한 조기 발견 및 빠른 방제 당부 -

□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들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래(飛來)해충인 ‘열대거세미나방(*Spodoptera frugiperda*)’의 도내 유입이 확인됨에 따라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를 당부했다.

○ 지난 11일 제주대학교에서 한림읍 수원리에 설치한 트랩에서 열대거세미나방이 발견됐다.

○ 이번에 발견된 열대거세미나방은 성페로몬 트랩으로 유인된 성충이며, 지난해 대비 7일가량 빨리 발견됐다.

* 첫 발견일: ‘21) 4. 24., ‘22) 5. 17., ‘23) 4. 18., ‘24) 4. 11.

○ 비래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, 멸강나방 등은 봄철 편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며 옥수수, 기장 등 벼과 작물을 가리지 않고 갹아먹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힌다.

○ 특히 중국 운남성 등의 해충 발생현황이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올해는 비래 시기가 빨라진 만큼 국내로 유입될 비래해충이 늘어날 전망이다.

□ 열대거세미나방을 비롯한 비래해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다.

- 성충기보다는 알에서 갓 부화한 어린 애벌레일 때 방제효과가 크기 때문에 발생 초기에 방제하면 피해주율이 1% 정도지만 방제시기를 놓친 뒤 방제작업을 할 경우 10~50%의 피해가 발생한다.
 - 기류를 타고 날아온 열대거세미나방 성충이 산란하고, 알에서 부화한 유충(애벌레)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시기는 5월 상순 경으로 예측된다.
 - 6월 상순 초당옥수수의 수확기를 앞두고 적기 예찰 및 방제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.
- 이에 농업기술원은 비래해충 대규모 발생 시 빠른 방제를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피해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.
-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, 옥수수 재배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.
 - 이와 함께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비래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·홍보자료 배포와 휴대전화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예방과 방제를 강화할 계획이다.
- 허영길 농업재해대응팀장은 “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예찰이 가장 중요하다”며 “열대거세미나방을 발견하면 농업재해대응팀(☎760-7551~3)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반드시 신고해달라”고 말했다.
- 한편 현재 열대거세미나방 방제 약제는 27개 작물·284개 품목이 등록돼 있으며, 농약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.